

# 통합된 ISO 9000 단일 인증제도의 출범

**전** 세계적으로 ISO 9000인증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 열풍은 향후 4~5년간은 지속될 것이며, ISO통계에 의하면 작년 10월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70,000여건의 인증서가 발행되었으며, 앞으로 4~5년 이내로 200,000건 이상의 인증획득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300여건이 '94년 말에 인증되고 금년내로 1,000여건이 인증 획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대기업에 의한 외국인증서의 선호경향으로 외국의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국내 인증기관을 기피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내적으로 이들은 ISO 9000 인증서의 획득 그 자체에 더 큰 목적이 있지, 자체의 품질시스템의 개선이나 이로인한 품질제고는 별로 안중에 없는 듯 싶다.

왜냐하면, 외국기관의 외국심사원의 상당수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적합한 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여러번 외국심사원과 함께 심사해 본 경험으로 알 수 있었다. 규정(Procedure)를 읽지 못하면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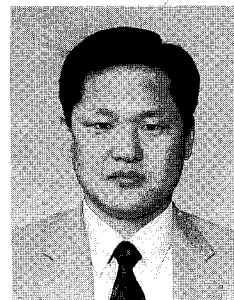
▲ ISO 9000시리즈에 관한 책자들

없다. 통역자에 의한, 그리고 기록서에 의한 심사는 30~40%의 심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앞으로는 한국어를 모르는 심사원에 의한 심사 그 자체가 거부될 것이며, 이로인한 인증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가간, 기관간, 상호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상호인정의 차선을 벗어나서 자기것만 고집하려는 아집때문에 결국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서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하고 있으며, 그 역도 마찬

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국내 품질경영혁신법에 의한 국가인증기관과 외국기관과의 합동심사에 의해서 2개의 인증서를 획득



이 경 만 선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인증관리부 품질경영팀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용면에서나 행정적인 면에서 많은 소모가 나타나는 것이다.

1993년 ISO 이사회에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타파하고 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그룹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드디어 전 세계 통합된 단일 인증제도인 QSAR제도가 선보이게 되었다. QSAR에 가입된 회원국에게는 인증서의 상호 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도 개별적이 아닌 단일인증서가 되므로 명실상부한 국제 단일 ISO 9000인증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인증기관 특히 지금까지 이분야에서 독주 또는 선점하고 있었던 기관들에서 이를 순수히 승락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진전은 국내 인증기관의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QSAR에 의한 인정기준이 그들에게 보다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ISO문서에 의하면(PRESS Release, 1995. 2. 2) 금년말에 이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먼저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ies)에 대하여 앞으로 신규 발행하게 된 ISO/IEC 가이드\*1에 따른 심사를 받고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승인된 인정기관이 ISO/IEC가이드\*2를 사용하여 인증기관도 인정하며 이들에 의한 인증서에 QSAR마크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QSAR제도가 새로운 가이드에 의하여 출범이 금년 말경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실제 인증서의 발급내지 사용은 '96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진흥청이 인정기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기관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속히 민간 인정기관이 설립되어 권한위임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자의적, 임의적으로 인증제도가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ISO 중앙사무국에서 지난 2월 2일 발행한 "PRESS Release"를 번역한 내용이다.

#### 1995년 말에 ISO 9000 단일 인증제도 출범

강제가 아닌 임의성 제도를 기본으로 한 ISO 9000 인증서의 국제적인 인정이 1995년 말에 시작됨으로서 품질경영으로의 사업 및 산업투자에 가치를 더하게 된다.

ISO(국제 표준화기구)는 지난 1/23~24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QSAR(품질시스템 평가 인정)시스템을 지원할 것과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활동계획을 승인하였다.

70개 이상의 국가내에 있는 기업들이 ISO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 규격인 ISO 9000계열에 기초한 품질경영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몇만 기업('94년 중순경 70,000건 이상)은 ISO 9000 규격에 그들의 품질시스템이 부합되는지를 "등록" 또는 "인증"기관들에 의하

여 독립적인 인증심사를 통한 검증을 받았다.

등록 또는 인증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ISO 9000 인증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의 고객에게 확신시킬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나라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복수심사 및 등록프로그램에 대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최대의 가치를 얻도록 하는 기업을 위하여 어떤 인증기관인가에 관계없이 그들은 세계 어느곳에서도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단일 인증서를 원하고 있다. 이 요구는 "한번의 품질시스템심사로 어느곳에서도 받아들여지는 한개의 ISO 9000인증서"라는 말로써 요약되곤 한다. 이러한 시장요구에 부응하여 ISO와 그의 동반자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1993년에 특별그룹인 QSAR그룹을 가동시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지난 1월 회의에서 ISO 이사회는 QSAR의 실행에 대한 첫단계의 결정을 하였고, 특별그룹으로부터의 최신 보고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가적인 논의는 QSAR내의 직접 이해관계를 나타낸 다른 기관과 함께 현존 국제적 제품인증제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제도를 IEC가 원하고 있으며, QSAR의 제1목표를 받아들여서 IEC에서는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있다.

주 \*1: ISO/CASCO 0226(개정2판)이 회원국에 회람되고 있으며 이 초안이 ISO/IEC Guide 61로 발간예정

\*2: 현재 ISO/CASCO 227(개정2판)이 회원국에 회람되고 있으며 이 초안이 ISO/IEC Guide 62로 발간예정

## QSAR 출범

QSAR을 출범시키기 위해 직면한 수순은 다음과 같다. '95년 6월에 공식적으로 품질시스템 인증기관 및 인정기관의 승인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 새로운 ISO/IEC 가이드가 발행될 것이다. 인정기관들은 ISO 9000인증기관, 예를 들면 인증기관이 적합한지에 대한 공식인정을 위하여 많은 나라에(때로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설립되어 있다. ISO 9000 인증서의 시장에서의 신뢰는 그 인증서가 인정된 인증기관에 의하여 발행되어 질 때에만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95년 7월에서 9월 사이에서 QSAR 프로그램은 회원제로 하여 국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첫번째로 신청을 접수받게 될 것이다.

10개의 인정기관을 회원제로 하여 출범시키며, QSAR 시스템을 관장하는 중앙사무국 간사는 ISO와 IEC에 의한 승인을 위하여 QSAR 위원회의 회원이 되도록 모집하고 지명될 것이다.

### QSAR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요약하면, QSAR은 다음과 같이 일할 것이다.

이 제도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인정기관들은 적합성평가에 대한 관련 ISO/IEC가이드의 기준에 의한 검토를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가이드에 부합됨이 입증된다면, 그들은 QSAR 회원으로서 수락된 것이다.

위원회는 이 제도의 운영규칙과 절차에 관한 초안을 준비하고 ISO/IEC 승인을 기다릴 것이다.

그들은 QSAR 시스템 하에서 등



록 및 인증에 대한 품질시스템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QSAR의 인정된 인증기관들 및 ISO 9000인증서를 발행받은 기업들은 QSAR마크를 사용하도록 위임받게 된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동의된 기준인 엄격한 기준하에서 수행된 등록과정후에 수여되어진 인증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QSAR 시스템에 의하여 개개의 ISO 9000인증서에 주어진 보증은 인증서에 가치를 더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증서의 수락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QSAR시스템 하에서 등록 및 인증에 대한 품질시스템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신청 접수받게 된다.

QSAR제도는 임의적으로 ISO 9000사용자(고객)만이 아니라 인정기관, 인증기관 모두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다. 그러나, QSAR의 성공도 이 3가지 요인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첫번째로 이것은 시장에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답이다. 이것은 기업이 필요로하는 ISO 9000인증서의 국제적 인정에 대한 골격을 창조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QSAR제도는 활동의 범위안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다. QSAR 위원회는 인증업무를 하는 기관과 ISO 9000의 이용자(고객)들의 양쪽에 해당되는 사업조직의 대표자로서 ISO/IEC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과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도에 참여하는 인정기관을 대표하는 3명의 위원과 품질시스템 인증기관을 대표하는 3명의 위원들이다.

위원회의 위원들이 세계 주요 무역지역의 대표자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이 제도는 ISO, ISO 9000의 작성자와 IEC의 관리하에서 운영될 것이며, 그중 2개 조직(ISO, IEC)은 국제적인 규모에서 그같은 활동에 적합성과 일관성을 가져오는 ISO/IEC가이드를 통하여 적합성 평가분야에서 굳건한 명

성을 이미 얻은 바 있다.

운영의 첫 4년동안 QSAR 프로젝트는 인정기관을 3년간 매년 10개 기관씩 회원을 늘여 갈 것이며, 시스템의 4년차에는 총 40개의 인정기관이 설립될 것이다.

이러한 회원들에 의하여 인정된 인정기관의 수는 동일기간내에 약 200~350개로써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국제 ISO 9000인증서의 발급건수는 4년후에 200,000건을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

QSAR시스템은 자체 회계시스

템이 될 것이나 우선은 ISO가 QSAR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ISO 위원회가 동의하였다. 상세한 사업 계획은 다음달에 준비될 것이다.

“ISO 9000실행(Implementing ISO 9000)”이란 제목의 안내서를 ISO 9000규격 및 ISO/CASCO(적합성평가위원회)의 기술전문위원회인 및 ISO/TC 176이 책임을 갖고 발행하였다. 이 안내서는 ISO 회원 및 ISO 중앙사무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추가적인 정보는 Press officer인 Mr. Roger Frost에게 문의 요망)

QSAR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난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진흥청에서 QSAR에 인정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제반문서 및 관련요원의 부족함이 문제이며, 또한 국가가 이를 주관한다면 이에 따른 제반 부작용이 생길 요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 ISO/IEC Guide 61에 부합된 민간 인정기관이 속히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 바른말 고운말

## 「열 남짓한 수」 나타내는 「여남은」 「여나무」 「여나뭇」으로 쓰면 틀려

우리는 일찍부터 감각적으로 「퍼지이론」을 체득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수를 이룰 때 분명히 말하지 않고 어림수로 이른다.

『사과 대여섯개 주시오』 『청중이 4, 5천명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도 전달체계에 혼란이 일지않고 잘 돌아간다. 우리의 수를 나타내는 말을 보면 특정한 수 하나만을 이르지 아니하고 둘 또는 세개의 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많다.

『한둘 두셋 서너 너덧 대여섯 예닐곱 일여덟 열아홉』 같은 말은 두 개의 수를 이르는 말이다. 이에 대해 「두서너」나 고어 「대닐곱」같은 말은 세개의 수를 복합적으로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말에 「십여(十餘)」를 나타내는 고유어로 「여남은」이 있다.

『여남은 살 먹은 소녀가 노래를 한다』

『그는 여남은 해 고생을 하였다』

『어제는 동창 여남은이 모였었다』

이는 물론 「열 남짓한 수를 나타내는 말」로 「열(十)」과 「남(餘)」이 합성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흔히 잘못 쓰인다.

「여나무, 여나뭇」이라 일러지는 것이다.

『여나무 살 먹은 소녀』

『여나뭇이 모여 토론을 했다』가 그것이다.

박용철의 「고향」가운데 『멈추는듯 불려온지 여나무 해』의 「여나무」도 이런 것이다.

「이십여」를 뜻하는 말도 「스무남은」이라 한다. 「스무남은 살 먹은 처녀」와 같이 쓰이는 것이 그것이다.